

## 딘 쿤츠의 『어둠의 눈』과 코로나 팬데믹 공포의 문화번역\*

이 형 진 (숙명여대)  
jinlee@sookmyung.ac.kr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원작 출간 40년 만에 언론과 대중의 급작스러운 역주행 관심을 받으며 2020년 4월, 한국어 번역본까지 최초로 발간된 미국 스릴러 작가 딘 쿤츠(Dean Koontz)의 1981년 소설 *The Eyes of Darkness*의 한국어 번역이, 작품의 문학성이나 작가성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코로나 팬데믹과의 연관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을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쿤츠 소설에 등장하는 치사율 100%의 ‘우한-400’ 바이러스가 현실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국 음모론을 구축하는 서구의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왜곡되는 과정을 문화번역 현상으로 규정했다. 원작의 낮은 작품성과 스릴러 소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직역으로 완성된 한국어 번역본은 쿤츠 소설의 급작스러운 베스트셀러 위상과 정치적 헤게모니의 문화번역 결과물이며, 한국어 번역에서 변형되고 과장되는 중국에 대한 편견과 왜곡은, 팬데믹 바이러스에 대한 무지와 공포, 편견이 문화번역과정에서 확대, 재생산된 흔적이고 결과물임을 밝히고 있다.

\* 본 논문은 2020년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된 한국비교문학회 온라인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논문임.

☞ 주제어: 딘 쿤츠, 『어둠의 눈』, 문화번역, 코로나 팬데믹, 공포, 혐오

## I. 들어가는 말

문학번역에서 원본과 번역본은 우열관계의 측면보다는 특정 목적성에 기반을 둔 인위적인 관계 설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원본의 존재 가치와 번역본의 존재 이유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인데, 원본은 해당 국가에서 특정 작가에 의해 특정 시기에 특정 언어로 완성된 역사성 자체만으로도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원본의 경우, 출판을 통해 해당 국가의 문학사에서 역사적 좌표를 확보할 수 있고, 비록 출간 당시 학술적, 대중적 관심을 받지 못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가치가 뒤늦게 발견되고 재조명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원본과는 달리 번역본은 특정 시기에 특정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효용성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번역본은 원본과는 달리 현실에서 30~40년이라는 암묵적 유효기간까지 부여되기 때문에 유한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번역본은 원본과는 달리, 원본 국가나 번역본 국가의 문학사에서 역사적 위상을 인정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번역본으로 항상 대체 가능한 유한적 존재라는 한계를 가진다. 게다가 모든 원본이 외국어로 번역·출판되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 번역은 태생적으로 선택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선택은 특정한 의도와 목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능하게 한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 사태를 예견했던 소설’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1981년 출판 후 40년 만에 최초로 한국어 번역본 『어둠의 눈』까지 출판된 미국 작가 딘 쿤츠(Dean Koontz, 1945~ )의 스릴러 소설 *The Eyes of Darkness*의 한국어 번역과정은 문학번역의 관점에서 흥미롭다. 쿤츠는 23살이던 1968년, 공상과학소설 『스타퀘스트』(*Star Quest*)로 작가 등단한 후, 지금까지 수십 편의 베스트셀러를 포함해 130여 권 가까운 단작을 발표하며 스티븐 킹(Stephen King)과 함께 미국 스릴러 소설의 양

대 산맥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2년 『어둠의 목소리』(*The Voice of the Night*) 이후 지금까지 70여 편의 쿤츠 소설이 한국어로 번역될 만큼 팬덤이 구축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수십 편의 작품이 올라갈 만큼 대중적으로 성공한 작가이지만, 스릴러 장르에 대한 문학적 편견으로 인해서뿐만 아니라 작품성 자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대중성과 문학성 사이의 극단적인 간극은 쿤츠를 바라보는 학계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미국 문학계에서 쿤츠 작품의 문학성을 다룬 연구서나 논문은 거의 없는 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금까지 영화로 만들어진 쿤츠의 20여 편의 소설들이 영화연구에서나 간헐적으로 언급될 뿐이며, 국내 학계에서도 쿤츠 소설에 대한 학술 논문은 지금까지 한 편도 없는 현실이다. 상대적인 비교 차원에서, 추리소설에 대한 장르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Hugo Award’(1982), ‘O. Henry Award’(1996), ‘National Book Award’(2003), ‘World Fantasy Award Lifetime Achievement’(2004), ‘Los Angeles Times Book Prize’(2011), ‘Edgar Award for Best Novel’(2015) 등 굵직한 문학상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미국에서 전설적인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미국 정부의 최고의 훈장인 ‘국가예술훈장’(National Medal of Arts)까지 수상한 추리소설의 대가 스티븐 킹과는 달리, 대학 재학시절 미국의 전통 있는 문예지 ‘애틀랜틱 먼슬리’(Atlantic Monthly)의 소설 공모전 수상 이후로는 마땅히 주목할 만한 수상 경력도 거의 없었던 쿤츠의 한계를 고려하면, 원작 출간 40년 만에 급작스러운 역주행으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한국어 번역본까지 최초로 발간된 쿤츠의 1981년 소설 *The Eyes of Darkness*의 한국어 번역은 작가성이나 문학성의 가치보다 코로나 팬데믹(COVID-19)과의 연관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문화번역의 의도와 선택, 그리고 목적성은 문화번역이 단순히 원본과 번역본, 작가와 번역가 사이의 역학관계의 결과물에 국한되지 않고, 번역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헤게모니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텍스트 외적인 다양한 층위의 요인들의 영향 관계의 결과물이라는 문화

번역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다. 문학번역의 정의를 ‘다시쓰기’(re-writing) 과정으로 규정한 앙드레 르페브레(Andre Lefevere)는 문학번역에 영향을 행사하는 텍스트 외적인 문화번역 요인들을 크게, ‘후원자’, ‘이데올로기’, ‘시학’, ‘대중 담론’ 네 가지로 정리하는데,<sup>1)</sup> 본 연구는 ‘후원자’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쿤츠의 1981년 소설 *The Eyes of Darkness*의 2020년 한국어 번역과 수용과정에 나타나는 코로나 팬데믹 공포의 확대, 재생산 기제로서의 문화번역의 역할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문화번역의 특징과 위계성

‘문화번역’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대치하는 일반적인 ‘번역’과는 달리, 타자의 언어, 행동 양식, 가치관 등에 내재화된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여 맥락에 맞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행위<sup>2)</sup>’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맥락’의 배경에는 특정한 정치·사회적·환경적 요인의 개입이 작동하기 때문에, 문화번역은 ‘의미를 등가적으로 교환하거나 초월적 위치에서(중립적으로) 매개하는 작업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타 문화를 해석하고 변용해 들어오는 행위’가 된다.<sup>3)</sup> 문화번역의 개념이 서로 다른 문화관점의 수용방식과 영향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문화인류학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번역연구에서 문화번역의 구체적인 지점을 짚어내는 작업은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다. 특히, 다양한 흔적의 현장과 인적 자원을 증시하는 문화인류학 연구와는 달리<sup>4)</sup> 서로 다른 언어문화간

1) 김가희, 박윤희, 「르페브르의 문학번역 제약 고찰 및 적용: 문학번역 텍스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7.2 (2016): 218-219.

2)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또 하나의 문화, 2005, p. 48.

3) 이명호, 「문화번역의 정치성: 이국성의 해방과 이웃되기」, 『비평과 이론』 15.1 (2010): 234.

4) 문화인류학의 학문 영역 속에는 문화를 연구하는 민족지학, 민족학, 사회인류학, 민속학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문화인류학은 궁극적으로 지구촌

의 교차 현상을 텍스트 기반으로 접근하는 번역연구에서 텍스트와 문화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번역연구가 문화연구와 상대적 차별성과 고유성을 가지는 지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번역연구에서 논의하는 문화번역의 특징과 목적은 결국 텍스트 번역역을 둘러싼 포괄적 행위가 문화적 영향 관계나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위계 관계를 통해 어떻게 조정되고 재설정되고 변형되면서, 특정한 번역목적이 번역 전략이나 번역 방향성에 끼치는 영향 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다.

‘언어적 환대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환대를 경험하게 하는 장으로서 ‘문화번역’은 두 다른 언어의 수평 이동이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음’을 살피게 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본격화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한다’<sup>5)</sup>는 관점에서 우리는 ‘문화번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간 교차 행위가 결코 수평적이거나 평등하지 않음에 주목한다. 특히 문화번역 행위는 하나의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언어문화권과의 접점 안에서의 충돌을 유발하는데, 서로 다른 두 문화권의 헤게모니가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현실과, 이 같은 헤게모니 불평등성이 실제 번역과정과 전략, 결과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문화번역의 본질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원본과 번역본은 각각 속해 있는 문화권의 헤게모니에 기반하기 때문에, 번역과정은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 헤게모니의 교차와 충돌을 유발하고, 완성된 번역본은 그 같은 문화 헤게모니의 충돌의 흔적과 결과물로 남는다. 원본과 번역본의 헤게모니 관계에서 원본의 헤게모니가 강력한 경우는 번역의 필요성을 이끌어내고, 원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직역과 같은 번역 전략

---

의 다양한 문화의 보편성을, 민속학은 자신들의 문화가 가지는 독창성을 찾기 위하여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구의 보편성을 연구하기 위한 현장론적 연구방법이나 현지조사방법론과 같이 실증주의적 현지조사의 연구 비중이 크다. 박환영, 『인류학에서의 비교연구: 영미권 인류학의 관점과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53 (2014): 148-150.

- 5) 정은귀, 「번역의 윤리와 정치성: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세계문학 번역사」, 『Trans-Humanities』 7.2 (2014): 42.

을 유도하는 반면, 원본을 수용하는 번역문화권의 헤게모니가 더 강력한 경우, 번역가의 개입을 통해 원본을 자의적으로 축소, 변형시키면서 도착어권의 독자들의 수용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번역 전략으로 이어진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학번역에서 발생하는 문화 헤게모니의 충돌을 ‘다중체계’(Polysystem) 이론으로 정립한 이스라엘 번역학자 이타마르 이븐 조하르(Itamar Even-Zohar)는 원본텍스트와 번역텍스트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번역할 텍스트의 선택부터 번역 시기, 번역 목적, 번역 전략까지도 번역가나 출판사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선택이 아니라 문화번역의 환경에 작용하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경제적 다중체계를 묶어 번역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적 요인으로 범주화함으로써<sup>6)</sup> 문학번역의 사회학적 특징을 강조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딘 쿤츠의 소설 *The Eyes of Darkness*의 한국어 번역·출판은 텍스트 번역과 문화번역의 측면에서 흥미로운 연구대상이 된다. 1981년 발표된 쿤츠의 소설 *The Eyes of Darkness*가 무려 40년이나 지난 2020년 한국에서 최초로 번역 출판되어 수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번역 요소와,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팬데믹 공포가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은 문화 헤게모니 요소가 실제 문학번역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 III. 딘 쿤츠 소설 *The Eyes of Darkness*의 국내 수용

1981년 미국에서 출판된 이후로 40년 가까이 국내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The Eyes of Darkness*가 처음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2월 15일 전후였는데, 이 소설의 국내 수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쿤츠의 소설이 미국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최근 재발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쿤츠 소설에 대한 뒤늦은 관심은 작가

6) 마승혜, 「폴리시스템(Polysystem) 이론에 관한 고찰 및 이론 진화를 위한 새로운 논의」, 『번역학연구』 18.1 (2017): 46.

쿤츠나 작품 가치의 재발견으로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엄습한 ‘코로나 팬데믹’과의 연관성 때문이라는 점이 국내에서의 쿤츠 소설의 수용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쿤츠의 소설이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2020년 2월 1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톰 코튼 의원이 청문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언급하면서, 중국 우한에 위험한 전염성 병원균을 다루는 ‘생물 안전 4급 슈퍼 실험실’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 시장이 아닌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불러일으킨 큰 파장이 출발점이었다.<sup>7)</sup> 그리고 바로 이틀 후,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South China Morning Post*)의 2월 13일자 공식 트위터에 “딘 쿤츠의 1981년 스릴러 소설에서 ... ‘우한-400’이라고 일컫는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처럼 미래의 일들을 마치 예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소설들은 과연?”<sup>8)</sup>이라는 내용이 올라오면서 언론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바로 뒤이어 2월 14일부터 국내 언론에서도 쿤츠의 소설을 앞다투어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국내 언론의 보도는 바로 직전 해외 언론의 쿤츠 소설 보도 내용과 제목을 그대로 옮겨오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특히, 쿤츠의 소설이 ‘코로나19와 판박이’라는 주장이나 ‘우한 군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제조되었다’는 주장과 같이 해외 언론 보도를 일방적으로 실어나르는 국내 언론의 관심은, 근본적으로 이 소설이 바이러스에 관한 과학소설이 아니며, 450쪽 넘는 한국어 번역본에서 ‘우한-400’ 바이러스에 관한 언급은 소설 끝부분의 고작 10여 쪽에만 등장한다는 사실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내 언론에서 쿤츠의 소설을 소개하던 초기의 대부분의 기사 제목들은 쿤츠

7) 「신종 코로나 ‘생화학무기설’에 美 상원-中 대사 충돌 ... 트럼프 ‘4월엔 사라질 것’」, 『KBS 뉴스』 2020년 2월 11일.

8) “SCMP News.” *Twitter*, 13 Feb. 2020.

“A virus called Wuhan-400 makes people terribly ill ... in a Dean Koon tz thriller from 1981. How is it that some books appear to prophesy events?”

소설의 제목조차 언급하지 않은 채, 중국 우한과의 연관성만을 공통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쿤츠 소설에 관한 국내 언론의 관심의 방향과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날짜	보도매체	기사 제목
2020년 2월 14일	뉴스1	‘우한서 바이러스 전파 美소설, 코로나19와 판박이 소름’
2020년 2월 14일	뉴스스	‘30년전 美소설, 코로나19예견? 우한 군실험실에서 바이러스 제조’
2020년 2월 14일	세계일보	‘우한 생화학 무기 개발 음모론, 40년전 美 단 쿤츠 소설 재조명’
2020년 2월 14일	서울신문	‘작가가 시간여행을 했다 ... 우한 사태 예견한 40년 전 소설 화제’

<표 1> 딘 쿤츠의 소설 *The Eyes of Darkness* 소개 국내 기사

쿤츠 소설에 대한 국내 언론의 관심은 이에 그치지 않고 2월 말부터는 ‘코로나19’ 예언서로서 쿤츠 소설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기대로 확장되면서 관심이 고조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웬만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국내 언론에서 쿤츠 소설에 이토록 집착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 소설에 등장하는 치명적인 가상의 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을 부각함으로써 소설에서 언급된 ‘우한-400’ 바이러스 발원지에 대한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날짜	보도매체	기사 제목
2020년 2월 28일	매일경제	‘40년前 우한바이러스 예견 ... 딘 쿤츠 소설 한글판 나온다’
2020년 3월 2일	YTN	‘40년 전 ‘코로나19’ 예언서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
2020년 3월 6일	매일경제	‘우한 바이러스, 예언한 미국소설, 국내서도 출간 될까?’
2020년 3월 27일	연합뉴스	‘우한 코로나 예견한 ‘어둠의 눈’, 다음달 10일 출간’

2020년 3월 27일	한겨레	‘40년 전 코로나19 예견, 화제의 소설 국내서도 만난다’
2020년 3월 27일	뉴시스	‘소설 『어둠의 눈』, 39년전 ‘우한 코로나’ 어떻게 예견했을까?’
2020년 3월 27일	매일경제	‘40년전 우한 바이러스 예언... 딘 쿤츠 ‘어둠의 눈’ 4월 출간’
2020년 3월 29일	한국경제	‘코로나19 예견 소설 <어둠의 눈> 내달 출간’
2020년 3월 31일	매일경제	‘[단독] 소설 속 우한 바이러스, 인간이 만들었다는데’
2020년 4월 9일	파이낸셜뉴스	‘40년 전 코로나를 예언한 美 소설 [책을 읽읍시다]’
2020년 4월 13일	YTN	‘[15초 뉴스] 40년 전 ‘코로나19’를 예측한 소설이 있다?’
2020년 4월 18일	중앙Sunday	‘코로나 닮은 팬데믹 40년 전 예언한 소설’
2020년 4월 18일	세계일보	‘우한 바이러스 예견 거대한 음모 파헤친 딘 쿤츠의 스릴러’
2020년 4월 20일	매경이코노미	‘[BOOK] 어둠의 눈, 40년 전 ‘코로나19’를 예견한 소설’

<표 2> 딘 쿤츠의 소설 한국어 번역본 『어둠의 눈』 소개 국내 기사

쿤츠 소설이 출판 40년 만에 국내에서 역주행으로 소환되는 데는 언론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작품 소개가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쿤츠 소설의 존재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프레임으로 신속하게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언론은 쿤츠 소설의 한국어 번역본 출간과정에서 중요한 ‘후원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문학 번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텍스트 외적인 요인 중 하나로 르페브레가 제시한 ‘후원자’(patronage)의 세 가지 종류로는, 첫째, 세익스피어를 후원했던 엘리자베스 I세 여왕, 나치의 히틀러와 같은 특정 시기의 특정 권력자이거나, 둘째, 언론이나 출판사, 정당과 같은 특정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이나 단체, 셋째, 문학의 공유나 배포에 영향을 행사하는 도서관 같은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문예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들 ‘후원자’들을 움직이는 이해관계로는 ‘이념적’, ‘경제적’, ‘상부상조적’ 역할 관계가 작동하는데,<sup>9)</sup> 쿤츠 소설의 한국어 번역본 출간의 후원자로서의

언론의 역할은, 문학성도 높지 않은 외국 스틸러 작가의 40년 전 소설을 단순히 홍보하려는데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에 걸쳐 강력한 통제와 개입이 이루어지는 중국에 대한 언론의 경계심,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에 대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관점의 투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쿤츠 소설에 등장하는 ‘우한-400’ 바이러스의 정확한 실체이며, 특히 이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시키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50쪽의 한국어 번역본에서 거의 끝부분인 435쪽에 처음 언급되는 ‘우한-400’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한-400은 완벽한 무기라오. 오로지 인간만을 괴롭히니까. 다른 생명체로는 옮겨갈 수가 없고 그리고 우한-400은 매독균처럼 살아 있는 인간의 몸을 벗어나면 1분 이상 생존할 수 없소 ... 그리고 숙주가 죽어서 체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몸속 우한-400은 소멸하오 ... 바이러스와 접촉한 지 네 시간만 지나도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가 있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잠복기가 짧단 말이오. 그리고 일단 감염이 된 사람은 24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모조리 죽게 되오. 대부분은 열두 시간 만에 목숨을 잃지. ... 우한-400의 치사율은 100퍼센트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소.” (쿤츠, 435-36)

쿤츠 소설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한-400’ 바이러스는 무엇보다도 균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제조된 치사율 100퍼센트 생화학 무기로서, 감염되고 12시간 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균이며, 인간만을 대상으로 전염성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의 몸 밖으로 나오면 1분도 생존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 같은 특성은 현실의 코로나바이러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의 근거가 되는 치사율에서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즉, 바이러스 특성만 놓고 보면 쿤츠 소설의 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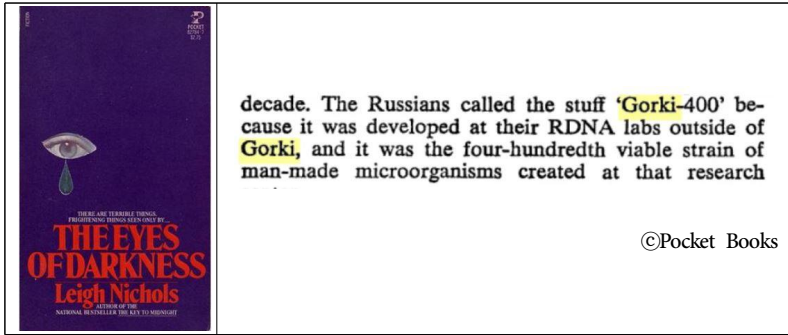
9) Munday, Jeremy.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Routledge, 2001, p. 128.

학무기 ‘우한-400’ 바이러스는 현실의 ‘코로나바이러스’와는 거의 유사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EV-1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내용의 영화 ‘컨테이션’(Contagion, 2011)이나, 미국에서 발명한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를 다룬 로빈 쿡(Robin Cook)의 소설 ‘바이러스’(Outbreak, 1987), 그리고 이보다 10년 전, 미국 네바다주의 생화학전 연구소에서 유출된 슈퍼 독감 바이러스가 인류 종말 위기를 초래하는 내용의 스티븐 킹(Stephen King) 소설 ‘스탠드’(The Stand, 1978) 등과 같이 유사한 공포의 팬데믹 바이러스를 다룬 소설이나 영화가 끊임없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사태에서 그 어떤 소설이나 영화도 쿤츠의 소설만큼 절대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은, 쿤츠 소설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결코 소설의 주제나 내용 때문은 아니었음을 반증한다.

더욱이 미국 현지의 CNN 같은 언론들이 이미 3월 13일자 기사에서 “No, Dean Koontz Did Not Predict the Coronavirus in a 1981 Novel”이라는 제목으로 쿤츠 소설과 코로나바이러스의 연관성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근거를 제시했는데, 쿤츠 소설에서 언급된 바이러스 발원지가 1981년 원본 소설에서는 중국 우한(Wuhan)이 아닌 러시아의 고르키(Gorki)였고, 원본 소설에서 지칭하는 바이러스 명칭도 ‘고르키-400’(Gorki-400)이었다가 1989년 개정판부터 갑자기 ‘우한-400’(Wuhan-400)으로 바뀌었다는 사실까지 강조하고 있다.<sup>10)</sup> 1981년 당시 필명이었던 리이 니콜스(Leigh Nichols)라는 이름으로 이 소설을 처음 발표했을 때는 쿤츠가 중국 우한을 염두에 두고 쓴 소설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예언서’로서의 신비와 가치를 반박할 수 있다.

10) “No, Dean Koontz Did Not Predict the Coronavirus in a 1981 Novel”, CNN, March 13, 2020.



<그림 1> *The Eyes of Darkness*의 1981년 초판 표지와 ‘고르키-400’ 언급 페이지(p.301)

쿤츠 소설에서 바이러스 진원지로 언급된 중국 우한 역시 작가의 초능력적인 예언의 일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연구소들은 실험 바이러스의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데, 천연두나 에볼라바이러스처럼 사람이나 동물에 매우 위험한 질병을 일으키며 사람 간의 전염성이 높은 치명적 바이러스를 다루는 연구소를 ‘생물안전 4등급’(BSL(BioSafety Level)-4)으로 분류하고 있다.<sup>11)</sup> ‘생물안전 4등급’ 연구소는 원래 미국, 구 러시아, 프랑스 등 극소수 국가에서만 운영하던 1급 보안 연구소였는데, 현재 전 세계에 21개국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논란이 되었던, 중국 최초의 ‘생물안전 4등급’ 연구소인 ‘중국과학원 우한바이러스연구소’(WIV)도 그중 하나이며, 치명적인 천연두바이러스 표본을 연구목적으로 공식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전 세계 두 군데 연구소인 미국 애틀랜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러시아의 ‘국립 바이러스 및 생명공학 벡터연구소’(VECTOR)도 대표적인 ‘생물안전 4등급’ 연구소다. 특히, 1974년 세워진 러시아 유일의 ‘생물안전 4등급’ 연구소인 ‘벡터연구소’는 구소련 시절에 생물학 무기 제조를 위해 탄저병 등 감염병을 연구했으며, 현재는 인체에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를 비롯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11) “Biosafety level”, Wikipedia.com

(HIV)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소로 남아 있는데, 지난 2019년 실험실 내의 가스통 폭발사고로 큰 화재가 발생해서 전 세계 주목을 받은 바 있었다.<sup>12)</sup> 우한바이러스연구소 또한 그중 하나이며, 이처럼 인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다루는 ‘생물안전 4등급’ 연구소는 미국에만 현재 13군데 있는데,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구 소련 연방, 중국, 인도 등에 위치한 ‘생물안전 4등급’ 연구소들이 관리 안전성 문제로 종종 논란이 되면서 소설이나 영화에서 팬데믹 재앙의 배경으로 종종 등장해왔다.

그동안 유사한 바이러스 팬데믹을 다루었던 다른 소설들보다도 유독 쿤츠 소설이 코로나 팬데믹 예언서라는 명분으로 대중적으로 관심이 확대, 재생산되어 온 배경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중국 우한이라는 미국의 주장과, 이에 근거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지칭할 것을 고집해온 미국의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제보건기구(WHO)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특정한 지역명이나 인명, 동물이나 식품명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해 왔는데,<sup>13)</sup> 이는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전염병 이름이 특정 국가나 지역, 인종이나 동식물과 연관되면서 해당 지역이나 인종, 동식물이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해서 혐오의 대상으로 남거나 거론되는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2015년 국내에 보건 비상사태를 초래했던 ‘메르스바이러스’를 더이상 ‘중동 바이러스’라고 부르지 않고, 특히 ‘에볼라바이러스’를 ‘아프리카 바이러스’라고 하지 않고, ‘AIDS 팬데믹’을 ‘미국 팬데믹’이라 하지 않으며, 14세기 중세 유럽의 ‘흑사병’을 ‘이탈리아 흑사병’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로이다.’<sup>14)</sup> 이 같은 팬데믹 바이러

12) 「치명적 바이러스 보관한 러시아 연구소 폭발 ... 공포 확산」, 『국민일보』 2019년 9월 18일자.

13) “WHO는 2015년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 ‘알려지지 않은’이나 ‘치명적인’처럼 과한 공포를 유발하는 수식어도 가급적 노출하지 말라고 밝혔다. (...) CNN은 “질병의 공식 이름은 증상이나 영향을 받는 사람, 심각성, 계절적 특성에 근거해 일반적인 서술어로 구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우한 폐렴을 ‘신종 코로나’로 불러야 하는 이유는?」, 『한국일보』 2020년 1월 28일자.

스 명칭의 증립성은 인종이나 지역, 성별을 전혀 차별하지 않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 전염병에 대해 공동전선을 구축해서 대처해야 하는 인류의 사명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인권적인 배경에 근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미국의 주장은 무비판적으로 국내 언론을 통해 수용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패턴을 보여왔다는 점에서<sup>15)</sup>,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둘러싼 논란과 쿼츠 소설의 번역 수용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IV. *The Eyes of Darkness* 한국어번역과 팬데믹 문화번역

2020년 2월 7일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자신에 대한 미 의회의 탄핵소추가 부결된 직후,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중국의 대처방식과 중국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날짜	보도매체	기사 제목
2020년 2월 8일	YTN	‘트럼프, 中, 잘해낼 것 美 의약품 등 지원’
2020년 2월 8일	이데일리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 후, 中, 신종코로나 성공적 대응’
2020년 2월 9일	세계일보	‘시진핑, 신종 코로나 책임론 속, 트럼프, ‘잘 대응’ 두둔’
2020년 2월 19일	서울신문	‘트럼프, ‘시진핑, 코로나 매우 잘 하고 있다’ ... 중국 국민 사랑해’

<표 3> 코로나 관련 미국 대통령과 중국 관련 기사

그러나 그 이후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확산되고, 미국에서도

14) Zhaohui Su, Dean McDonnell, Junaid Ahmad, *et al.* “Time to stop the use of ‘Wuhan virus’, ‘China virus’ or ‘Chinese virus’ across the scientific community” *BMJ Global Health* 5.9 (2020): 2.

15) 「동아-중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표기... 조선-매경-한경 ‘우한 폐렴’ 사용」, 『한국기자협회』 2020년 2월 5일자.

사망자가 견잡을 수 없이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한 달 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입장은 바뀌고 중국 책임론을 내세우며 연일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날짜	보도매체	기사 제목
2020년 3월 17일	머니투데이	‘속내 있다? 트럼프 콧 집어 “중국 바이러스”라 불렀다’
2020년 3월 18일	연합뉴스	‘트럼프 ‘중국 바이러스’ 표현에 “매우 정확”...중국 책임론’
2020년 3월 19일	서울경제	“코로나19는 중국 바이러스” 트럼프 발언에...“인종 차별 부추긴다” 우려 커져’
2020년 3월 20일	YTN	‘트럼프, 기자회견문 ‘코로나’를 ‘중국 바이러스’로 수장’
2020년 3월 20일	이투데이	‘트럼프, 중국에 거센 비판...“그들이 저지른 일로 전 세계가 큰 대가 치러”

<표 4> 미국 대통령과 ‘중국 바이러스’ 명칭 논란

이 같은 정치·사회적 상황 변화에서 쿤츠의 *The Eyes of Darkness*는 2020년 3월 들어서자마자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3위로 급부상한 후 3월 18일에는 아마존 베스트셀러 픽션 부분 1위로 등극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쿤츠 소설이 미국 내에서 이 같은 관심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위협과 사투를 벌이는 인류의 용기와 승고함을 다룬 소설로서가 아니라, 미국 네바다주 시에라를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미스터리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이라는 물리적 배경 설정이 가지는 특수성에 기인하는데, 쿤츠 소설의 한국적 수용도 이 같은 바이러스 진원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2월,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던 미국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감염자 동선추적 같은 초기 방역을 거부하고, 마스크 쓰기조차 폄하하고 국민의 안전보다는 경제 정상화를 우선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까지도 좌파적 정치공세로 몰아갈 만큼 코로나 팬데믹을 정치화하였다. 이와 같은 질병

의 정치화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국 책임론에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편견의 확대, 재생산으로까지 이어지며 정치적 책임론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질병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의 통제불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전이시킬 대상을 희생양으로 만들어내는 효과를 통해 문제의 초점을 돌리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이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은유적으로 활용되는 것, 혹은 과장된 공포심의 유발로 연결되는 것은 질병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모르거나, 그것을 쉽게 극복할 수 없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sup>16)</sup>

국내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이에 동조하며 중국 때리기라는 움직임이 뒤따랐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편견과 차별, 공격, 혐오만 확산되면서,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시아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무차별적으로 모욕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인류학적으로 전염병의 사회적 낙인 효과는 매우 강력하다. 죽음과 오염은 특정한 집단을 외집단화 하거나 혹은 하위집단으로 전락시키는 강력한 문화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죽음을 상기시키는 것은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분노를 촉발시키는데,”<sup>17)</sup> 결국, 전염병의 가장 큰 공포는 전염병 자체가 아니라, 전염병이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혐오이며, 그 혐오가 공포로 확대되고, 공포가 편견으로 고착화되어 혐오가 마치 전염병처럼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차별이 제도화되는 악순환 고리라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혐오의 확대, 재생산은 쿤츠 소설의 한국어 번역본에서도 엿볼 수 있는 특징이다. 번역의 목적성 관점에서 볼 때, 쿤츠 소설이 출판 40년 만에 첫 한국어 번역본으로 이어지게 된 과정에는 분명 번역의 특

16) 최성민. 「질병의 낭만과 공포-은유로서의 질병」, 『문학치료연구』 54 (2020): 334.

17) 박한선. 「메르스와 전염병 인류학」, 『생명윤리포럼』 4.3 (2015): 6.

정한 목적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목적 중 하나는, 쿤츠 소설이 미국에서 역주행을 하며 베스트셀러가 된 계기를 만들었던 코로나바이러스의 팬데믹과 공포에 대한 한국적 관점과 수용이라 할 수 있는데, 번역을 둘러싼 과정과 결과가 자칫 공포와 혐오의 확대, 재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쿤츠의 소설 *The Eyes of Darkness*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인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실종된 아이를 찾아 나선 엄마의 역경과 집념을 다룬 이야기다. 엄마 에반스는 아들 대니를 여름 캠프 프로그램에 보냈는데, 참가했던 아이들과 캠핑 가이드가 모두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시신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가족들 확인도 없이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상심한 에반스는 그 후로 대니의 방에서 아들의 물건이 저절로 움직이고, 아들이 자주 사용하던 작은 칠판에 아들이 살아 있다는 메시지가 마치 초능력 같은 텔레파시로 적히고, 자신은 죽지 않았다는 문장이 노트북 화면에 저절로 타이핑되는 것을 보고, 아들의 생존을 직감하고 아들 죽음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친구와 함께 아들을 찾아 나선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450쪽의 총 40챕터로 구성된 소설에서 420쪽 분량의 37번째 챕터까지에 해당하고, 아들 납치사고가 발생했던 그 날의 진실과 미스터리 바이러스의 이야기, 아들 구출 과정은 소설의 나머지 끝부분 30쪽 남짓 분량에 집약되어 있다.

중국 우한의 ‘DNA 재조합연구소’에서 개발한 ‘우한-400’이라는 치명적인 생물무기 바이러스 제조 정보를 빼돌린 중국인 과학자가 미국으로 망명하는데, 그 바이러스 정보를 미국의 네바다주 비밀 연구소 실험실에서 복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연구원이 실험실을 탈출해서 산을 따라 내려오다가 마침 여름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이 타고 가던 미니버스를 만나 아이들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게 된다. 방호복을 입은 연구소의 비밀조직 요원들이 보안상의 이유로 모두를 연구소로 데리고 가서 격리시켰는데, 대니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즉시 사망한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바이러스에 대한 천연 항체를 몸에서 만들어내고, 자신이 간혀 있는 실내의 온도까지 초능력으로 조절하면서 생명

을 지탱하고 있는 대니를 대상으로 실험실 비밀조직 요원들이 몇 달째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투입하는 생체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 에 반스가 결국 아들을 구출하고, 대니는 비밀조직 요원들이 타고 뒤쫓아오던 헬리콥터를 초능력으로 추락시키면서 소설은 끝난다.

주제나 구성의 측면에서 쿤츠의 소설은 매우 단순하다. 실종, 죽음, 범인 추적이라는 전형적인 스릴러 소설의 구성과 특징에 충실하면서도, 소설의 서사적 전개와 개연성이나 주제의 깊이는 약하고, 구체적인 갈등이나 반전도 부재하며, 결론 역시 주인공 대니의 초능력적인 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뿐 그 어떤 미학적 장치나 상징, 상상의 여지도 크지 않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작가나 작품의 두드러진 문학적 가치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 1. 공포와 혐오의 번역

이 소설의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공포와 혐오의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 번역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쿤츠의 450쪽 한국어 번역본에서 중국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비록 5~6쪽밖에 되지 않지만, 쿤츠 소설에서 중국에 관한 언급의 한국어 번역에서는, 팬데믹 사태 속에서 미국 대통령의 편견에 담겨 있는 질병에 대한 공포와 중국에 대한 혐오가 어떤 형태로 유사하게 확대, 재생산되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 그 논란의 중심에는 ‘China’와 ‘the Chinese’의 한국어 번역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예시1]

<i>The Eyes of Darkness</i> , p.229	He didn't have any choice but to commit the installation to it once we found out <u>the damn Chinese</u> were deeply into it.
『어둠의 눈』, 321쪽	<u>그 망할 중국인들이</u>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걸 발견한 이상 이 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요.

[예시1]에서 볼 수 있듯이, 쿤츠의 소설에서 사용된 ‘the damn Chinese’라는 표현은 맥락상 치명적인 생화학무기 바이러스를 개발한

중국 정부나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에 대한 분노의 표출인데, 소설에서 계속 언급되는 바와 같이 바이러스 개발의 주체는 분명 중국 정부나 중국의 국가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망할 중국인들’이라는 표현을 선택한 한국어 번역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는 중국 정부와 중국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시2]

<p><i>The Eyes of Darkness</i>, p.229-30</p>	<p>It's <u>China's</u> nasty little project, remember. ... If you have to blame someone because you're feeling guilty about what we're doing here, then blame <u>the Chinese</u>, not me.</p>
<p>『어둠의 눈』, 321쪽</p>	<p>기억하세요. 이걸 다 중국의 더러운 프로젝트 때문이라는 걸요. ...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에 죄책감을 느껴서 누구를 탓하고 싶으시다면, 저 말고 중국인을 탓하세요.</p>

같은 쪽 [예시2]에서는 바이러스 개발이 ‘중국의 더러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소설에 등장하는 미국의 네바다주 실험실에서 이 바이러스를 복제하고 있는 상황도 결국 중국이 먼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이 만들고 있다는 논리를 옹호하는 명분이 된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은 결국 ‘blame the Chinese, not me’라고 하며 바이러스를 개발한 주체인 중국 정부나 연구기관을 비난하는 원본의 맥락이,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중국인을 탓하세요’라고 번역되었다. 원문에서 중국 정부나 연구기관의 비윤리적 행위를 비판하는 맥락이 한국어 번역에서는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와 중국 사람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

[예시3]

<p><i>The Eyes of Darkness</i>, p.230</p>	<p><u>They</u> scare me sure enough. If there's any government on earth capable of using a weapon like this, it's <u>them</u>.</p>
<p>『어둠의 눈』, 322쪽</p>	<p>나는 중국인들이 너무 무섭소. 지구상에서 이런 무기를 사용할만한 나라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중국일 거요.</p>

이처럼 중국 정부와 중국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한국어 번역은 [예시3]에서도 반복되는데, 영어의 인칭대명사 ‘They’가 맥락상 중국 정부나 연구기관을 가리키고 있고, 바로 이어서 ‘if there is any government ...’라는 문장이 나오는 것에 근거하면 여기서도 ‘They’는 바이러스를 개발한 중국 정부나 연구기관을 지칭하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번역에서 ‘they’를 인칭대명사 ‘그들’ 대신 오히려 명사와 전략을 통해 ‘They scare me sure enough’을 ‘나는 중국인들이 너무 무섭소’라고 번역함으로써, 영어텍스트의 화자가 중국 정부나 기관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이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사람들에게 향하게 하는 변형과 왜곡이 초래된다고 할 수 있다.

[예시4]

<i>The Eyes of Darkness</i> , p.309	This is the only facility of its kind we have. <u>The Chinese</u> have three like it.
『어둠의 눈』, 433쪽	이 시설은 미국에 하나밖에 없는 연구소요. 반면 중국에는 이런 시설이 세 개나 있소.

[예시5]

<i>The Eyes of Darkness</i> , p.309	But if racing to keep up with <u>the Chinese</u> —or the Russians or the Iraqis—can create situations like the one we’ve got here,
『어둠의 눈』, 433쪽	하지만 중국을 따라잡거나 러시아, 이라크와 경쟁하려고 여기에 뛰어든다면 우리는 지금 같은 상황을 또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시4]와 [예시5]는 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동일한 ‘the Chinese’라는 용어를 항상 ‘중국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국가를 지칭하는 ‘중국’으로도 번역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쿤츠 소설에서 ‘the Chinese’의 표현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맥락상 중국이나 중국 연구기관 또는 중국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거나, 무의식적으로 ‘중국’과 ‘중국인’의 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번역했거나, 아니면 ‘중국’에 대한 비난과 혐오를 ‘중국인들’에 대한 비난과 혐오와 일방적으로 동일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혼란은 의도적이기보다는 번역가 역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문화 헤게모니 충돌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경계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번역가 개인이 문화번역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헤게모니에 저항하거나 주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만큼 문화적 헤게모니가 번역가와 번역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예시6]은 ‘the Chinese’라는 용어 번역에 혼란과 편견이 작동하면 어떤 위험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the Chinese’는 생화학무기인 ‘우한-400’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도시나 국가 전체를 완전히 쓸어버린 다음 해당 지역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는 주체로 묘사되는데, 그 같은 주체로서의 ‘the Chinese’는 중국 정부나 군대밖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번역은 그 주체를 ‘중국인들은 우한-400을 이용해 특정 도시나 나라를 싹 쓸어버릴 수 있겠군요.’라고 번역함으로써 혐오와 공포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중국인으로 명시화하고 있다.

[예시6]

<p><i>The Eyes of Darkness</i>, p.311</p>	<p>If I understand you, <u>the Chinese</u> could use Wuhan-400 to wipe out a city or a country, and then there wouldn't be any need for them to conduct a tricky and expensive decontamination before they moved in and took over the conquered territory.</p>
<p>『어둠의 눈』, 435쪽</p>	<p>내가 이해한 대로라면 중국인들은 우한-400을 이용해 특정 도시나 나라를 싹 쓸어버릴 수 있겠군요. 그런 다음 여느 생화학무기를 썼을 때처럼 돈이 많이 들고 까다로운 오염 제거 작업을 할 필요도 없이 들이닥쳐 점령지를 차지할 수 있고요.</p>

[예시7]에서도 ‘the Chinese’가 일관되게 ‘중국인들’이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한-400’ 바이러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나 중국 기관이 수많은 정치범들을 대상으로 해당 바이러스의 생체실험을 시도했다는 주장에 관해서이다. 정치범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명백히 국가나 정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한국어 번역본은 일관되게 ‘중국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정치범들에게 이 바이러스를 실험했지.’라고 번역함으로써 바이러스 생체실험의 주체를 중국인들로 규정해서, 마치 중국인들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관동군 731부대 수준의 파렴치하고 비윤리적인 범죄 주체로 왜곡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왜곡은 일반 중국인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증오와 혐오로 확대, 재생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로 인해 유발된 증오와 혐오는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하고 고착화시키기에 충분한 만큼 파장과 전염성이 클 수 있다.

[예시]

<p><i>The Eyes of Darkness</i>, p.311</p>	<p>You can become an infectious carrier only for four hours after coming into contact with the virus. That's an incredibly short incubation period. Once infected, no one lives more than twenty-four hours. Most die in twelve. It's worse than the Ebola virus in Africa—indefinitely worse. Wuhan-400's kill-rate is one hundred percent. No one is supposed to survive. <u>The Chinese</u> tested it on God knows how many political prisoners.</p>
<p>『어둠의 눈』, 435-36 쪽</p>	<p>바이러스와 접촉한 지 네 시간만 지나도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가 있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잠복기가 짧단 말이오. 그리고 일단 감염이 된 사람은 24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모조리 죽게 되오. 대부분은 열두 시간 만에 목숨을 잃지. 아프리카에서 도는 에볼라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력하오. 우한-400의 치사율은 100 퍼센트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소. <u>중국인들은</u> 셀 수 없이 많은 정치범들에게 이 바이러스를 실험했지.</p>

쿤츠 소설에서 ‘우한-400’과 관련해서 ‘the Chinese’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이라고 번역한 것만 가지고 얼마나 문화번역의 구체적인 영향력이 초래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관점도 가능하겠지만, 이 같은 인종적 편견과 혐오는 특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팬데믹 공포 상황에서 그 파장과 전염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표출한 차별과 혐오적 관점과도 일맥상통하는 특징이 있다.<sup>18)</sup> 그리고 대통령의 이

같은 음모론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음모론의 근거와 불쏘시개로도 작동했다.<sup>19)</sup> 그 이후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국이 경쟁국 경제 망치려 코로나 퍼뜨렸을 가능성’(조선일보, 2020.6.19)을 제기하면서, 중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미·중 무역전쟁의 무기로 활용한다는 음모론을 또 한 번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도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쿵푸’를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빗대어 ‘코로나19는 쿵푸루…인종차별적 발언 논란’(YTN, 2020.6.21.)까지도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팬데믹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왜곡되고 인종차별적 인식이 거리낌 없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팬데믹 재난에 직면한 대통령의 미숙한 대응력에 대해 미국 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의 비난이 쏟아지자, 대통령은 오히려 중국인들과 중국 음식문화의 낮은 위생관념을 거론하며 중국을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로 몰아가고, 중국을 공공의 적으로 프레임화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보수 지지자들을 열광시키는 왜곡된 애국 전략으로 활용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례없는 전 세계적 팬데믹 사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대응방식은 철저하게 중국을 적대시하고 중국 음모론을 무분

18)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중국 바이러스, 인종차별 아닌 정확한 표현’(머니투데이, 2020.3.19)이라는 주장을 통해 중국에 대한 책임소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미국 내 반중국 여론을 계속해서 자극해왔으며, ‘트럼프, 코로나19, 우한 연구실 유래 증거 봤다’(한국일보, 2020.5.1)와 같은 자극적인 주장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음모론에 기름을 부었지만, 파우치 박사 같은 미국 백악관의 최고 보건전문가조차 ‘파우치, 코로나19 ‘연구실 유출설’ 일축…‘동물서 인간에 전파’(연합뉴스, 2020.5.6.)라고 음모설을 일축하는 반면,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한 음모론의 구체적인 근거는 결국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무마되었다.

19) 이와 관련하여, 미국으로 망명한 홍콩 학자가 지난 9월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미국 내 보수성향 언론 매체인 폭스뉴스에서 주장하면서 또 한 번 음모론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나, 학계에서는 해당 논문이 동료 심사도 거치지 않았고, 참고문헌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주장을 뒷받침할 데이터도 미미하다는 이유로 신뢰성이 없다고 비판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해당 학자의 추가 입증이나 구체적인 근거 제시는 없는 상황이다. 「美망명 홍콩박사, 코로나, 우한연구소서 발병」, 『동아일보』 2020년 9월 14일자.

별하고 무책임하게 부각시키면서 일반 대중들의 분노와 공포심을 자극하는 방식이었는데, “분노는 늘 대상이 필요하고 그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함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는 ‘우리’와 ‘그들’의 이원론적 대립을 전제로 하는 증오”(정태식 85)가 미국 대통령의 왜곡된 혐오시각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종적 편견과 혐오가 쿤츠의 소설에서는 문학적 상상력의 차원으로 텍스트 내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오히려 한국어 번역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실제 현실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불안 심리와 두려움,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코로나 팬데믹 관련해서 중국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혐오의 형태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두 문화 사이의 문화적 헤게모니의 충돌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화번역 과정에 번역의 목적과 의도가 개입되어 번역 결과물에 실제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2. 문화번역의 헤게모니

번역의 직역과 의역 논란은 번역의 역사만큼이나 기원과 논의가 깊고 넓다. 특히 문학번역에서 직역과 의역 논란은 단순히 이분법적 분류가 아니라 직역과 의역 각각의 상호보완적인 특성에 기반해서 문학번역의 발전 원동력이 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역과 의역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번역의 방법론이라기보다 번역에 대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태도”<sup>20)</sup>라는 관점도 간과할 수 없는데, 이 같은 이데올로기 특성은 번역가를 결코 자유롭게 놓아두지 않는다. 문학번역에서 직역과 의역 문제는 단순히 번역가 개인의 선택 영역을 넘어서, 원본텍스트의 특성과 수용 언어문화권 사이에 형성되는 다양한 층위의 문화 헤게모니 관계에 의해 설정되는 번역 방식과 수용의 결과물로

20) 김윤진, 「문화 충돌과 번역의 문제점」, 『불어불문학연구』 45 (2001): 44.

남는다.

문학번역의 사회정치학적 요소는 단순히 문학번역이 텍스트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언어 간의 교차행위가 아니라, 텍스트가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시스템과 맺어가는 관계성에 의해서, 작품 선정뿐만 아니라 번역 시기, 번역가 선정, 번역 대상 독자 설정, 번역의 목적이거나 기대효과까지도 영향을 받는 역학관계가 구축된다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 그 결과, 번역이 원문에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에 주목하는 전통적인 방법론에서 벗어나 문화연구 접근법을 통해 특정 문화권에서 번역의 사회적 역할 및 번역 작업에 작용하는 이데올로기와 권력의 영향 관계에 집중하는 ‘번역사회학적’ 접근에 의의를 부여하게 된다.<sup>21)</sup>

원본과 번역본이 속한 서로 다른 언어문화권 사이의 위계관계가 문학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한 이븐 조하르의 ‘다중체계 이론’(Polysystem Theory)은, 번역이라는 공간에서 출발하여 문화권과 도차어 문화권이 만나 접점을 만드는 과정에 작동하는 헤게모니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를 시스템으로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문학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수용 형태와 번역 방식 분석에 유용하다. 비록 이 분법적인 접근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븐 조하르는 한 나라의 문학시스템 내에서 자국문학과 번역문화과의 관계성의 헤게모니에 근거해서 수용 방식과 번역 방식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자국문학이 문학시스템의 ‘중심’에 위치하고 번역문학이 ‘주변부’에 놓일 때는 번역문학의 수용이나 번역 방식이 기존의 자국문학이 구축해 놓은 틀에 종속되면서 수용의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가독성 중심의 번역 전략이 우세한 반면, 오히려 번역문학의 헤게모니가 자국문학보다 높은 경우에는 번역의 자연스러움보다는 번역의 어색함을 무릅쓰고 원본의 특징과 형식을 온전히 수용하고 따라가는 원본 중심주의적 직역의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한다.<sup>22)</sup>

21) 김봉석. 「한국사회학에 대한 번역사회학적 연구 시론」, 『문화와사회』 25 (2071): 237.

22) Even-Zohar, Itamar. “The Position of Translated Literature Within the

이 같은 원본과 번역본의 헤계모니 관계가 투영된 번역 방식과 번역 전략은 쿤츠 소설의 한국어 번역본 형식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쿤츠 소설은 총 40개의 소챗터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챗터는 1번부터 40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한국어 번역본도 이와 완벽하게 동일한 구성과 형식을 갖추고 있고, 소설의 첫 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문단 구성뿐만 아니라 문단 들여쓰기, 줄 바꾸기, 이탤릭체까지 시각적으로도 원본과 동일한 페이지 배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형식적 등가성은 첫 페이지뿐만 아니라 한국어 번역본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된 전략이라는 점에 주목하는데, 이 정도의 형식적 충실성과 등가성은 작가가 선택한 단어 하나하나뿐 아니라 문장 배치와 구조에도 집중하는 직역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시 번역 전략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p>1</p> <p>At six minutes past midnight, Tuesday morning, on the way home from a late rehearsal of her new stage show, Tina Evans saw her son, Danny, in a stranger's car. But Danny had been dead more than a year.</p> <p>Two blocks from her house, intending to buy a quart of milk and a loaf of whole-wheat bread, Tina stopped at a twenty-four-hour market and parked in the dry yellow drizzle of a sodium-vapor light, beside a gleaming, cream-colored Chevrolet station wagon. The boy was in the front passenger seat of the wagon, waiting for someone in the store. Tina could see only the side of his face, but she gasped in painful recognition.</p> <p>Danny.</p> <p>The boy was about twelve, Danny's age. He had thick dark hair like Danny's, a nose that resembled Danny's, and a rather delicate jawline like Danny's too.</p> <p>©Headline Publishing Group</p>	<p>1</p> <p>화요일 새벽, 자정을 6분 넘긴 시각, 새로운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티나 에번스는 낯선 이의 차에 탄 그녀의 아들, 대니를 보았다. 하지만 대니는 벌써 죽은 지 1년이 넘었다.</p> <p>두 블록만 더 가면 집이지만, 문득 우유 한 통과 통밀빵 한 덩이를 사야겠다 싶어 24시 마트 앞에 차를 세웠다. 나트륨등이 흩뿌리는 노란 빛은 건조했다. 옆에는 매끈하게 빛나는 크림색 체보레 스테이션왜건이 서 있었다. 웬건 조수석에 앉은 소년은 가게에 들어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년의 옆모습을 본 티나는 그 얼굴을 알아보고는 고통스럽게 숨을 헐떡이겠다.</p> <p>대니.</p> <p>열두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대니 또래다. 대니처럼 순 많은 검은 머리에, 대니를 닮은 코에, 대니와 같이 조금 섬세한 턱</p> <p>©다산책방</p>
<p>Koontz, <i>The Eyes of Darkness</i>, p.3</p>	<p>딘 쿤츠 『어둠의 눈』, 9쪽</p>

<그림 2> *The Eyes of Darkness*와 한국어 번역본 『어둠의 눈』의 첫 페이지 비교

Literary Polysystem”, *Poetics Today* 11.1 (1990b): 50.

이 같은 형식적 등가성만큼이나 내용 면에서도 쿤츠 소설의 영어텍스트는 사소한 단어 하나 생략 없이 꼼꼼히 번역된 결과, 영어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의 텍스트 크기가 거의 비슷한 A5 판본(148x210mm)임에도 불구하고 320쪽 분량의 영어텍스트가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440쪽이 넘을 만큼 원본에 매우 충실하고 세심한 번역으로 완성되었다. 특히, 소설의 전체적인 톤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첫 페이지를 살펴보면, ‘whole-wheat’, ‘dry yellow’, ‘sodium-vapor’, ‘gleaming’, ‘cream-colored’, ‘painful’ 등과 같은 다양한 형용사 표현 하나도 놓치지 않는 뛰어난 원본중심적 번역 충실성과 집중력도 확인할 수 있다.

[예시8]

<i>The Eyes of Darkness, p.3</i>	『어둠의 눈』, 9쪽
intending to buy a quart of milk and a loaf of <b>whole-wheat</b> bread	우유 한 통과 <b>통밀</b> 빵 한 덩이를 사야겠다 싶어
in the <b>dry yellow</b> drizzle of a <b>sodium-vapor</b> light	<b>나트륨</b> 등이 흘뿌리는 <b>노란</b> 빛은 <b>건조</b> 했다.
a <b>gleaming, cream-colored</b> Chevrolet station wagon	<b>매끈하게 빛나는 크림색</b> 쉐보레 스테이션왜건
she gasped in <b>painful</b> recognition.	타나는 그 얼굴을 알아보고는 <b>고통스럽게</b> 숨을 헉 들이켰다.

원본중심주의 번역 전략과 번역의 원본 충실성과 집중력은 소설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매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시9]는 쿤츠 소설이 대중의 폭풍 같은 관심을 받게 된 소재가 되었던 ‘Wuhan-400’ 바이러스가 처음 언급되는 장면이면서 소설의 결론 부분인데, 아들 대니의 실종 미스터리 실타래를 풀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바이러스의 충격적 실체가 확인되는 부분이라서 번역 역시 상당히 구체적이고 꼼꼼한 원본중심주의 번역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소설 전체적으로도 원본으로부터 생략된 문장이나 단어 하나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두드러진 번역 충실성과 집중력은, 세계문학에서 정전화된 세계적 문호의 그 어떤 고전텍스트의 번역 못지않은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시9]

<p><i>The Eyes of Darkness,</i> p.310-11</p>	<p>‘Wuhan-400’ is a perfect weapon. It afflicts only human beings. No other living creature can carry it. And like syphilis, Wuhan-400 can’t survive outside a living human body for longer than a minute. ... And when the host expires, the Wuhan-400 within him perishes a short while later, as soon as the temperature of the corpse drops below eighty-six degrees Fahrenheit.</p>
<p>『어둠의 눈』, 435쪽</p>	<p>우한-400은 완벽한 무기라오, 오로지 인간만을 괴롭히니까. 다른 생명체로는 옮겨갈 수가 없소. 그리고 우한-400은 매독균처럼 살아 있는 인간의 몸을 벗어나면 1분 이상 생존할 수 없소. ... 그리고 숙주가 죽어서 체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몸속 우한-400은 소멸하오.</p>

여기서 가능한 문제 제기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원본 집중력과 원본중심적 충실성의 근거와 필요성에 관해서인데,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장르적 특성의 문제인데, 쿤츠의 작품은 전형적인 스릴러 소설로 분류된다. 스릴러 소설은 장르의 특성상, ‘범죄사건’, ‘조사’, ‘추격’, ‘은폐’ 등의 정형화된 서사적 구조와 흐름을 통해 빠른 속도감과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독자들의 이해와 몰입도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sup>23)</sup> 특히 스릴러 소설 번역에서는 다른 문학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략이나 변형이 특히 많이 발생한다. 더욱이, 스릴러 소설의 특성상, 긴장감 유지와 고조를 위해 소설 흐름의 속도감을 살리는 번역을 목표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번역본이 원본보다 짧아지는 압축 번역이 스릴러 소설 장르의 번역 특징이자 관행이라 할 수 있다.<sup>24)</sup> 프랑스 작가 카릴 페레이

23) Pyrhönen, Heta. “Criticism and Theory.” In *A Companion to Crime Fiction*, edited by Charles J. Rzepka and Lee Horsley. West Sussex, UK: Wiley-Blackwell, 2010, p. 54.

24) 참고로, 유사한 스릴러 소설 계열인 정유정의 『종의 기원』(2016)을 영어번역 *A Good Son*(2018)과 비교해보면 A5 판본(150x210)인 『종의 기원』에 비해 영어번역 *A Good Son*은 B6 판본(128x195)으로 원본보다 크기가 20% 가까이 작을 뿐만 아니라, 쪽수도 310쪽으로 분량 면에서 한국어 원

(Caryl Férey)의 범죄소설 *Utu*(2004)의 영어번역본을 분석한 엘렌 카터(Ellen Carter)의 연구는, 프랑스어 원본에 사용된 813개의 은유 표현 중에서 영어번역에는 31%가 생략되고 583개의 표현만 남았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한다.<sup>25)</sup> 이 같은 경향은 스릴러 소설의 특성상, 작가나 작품의 문학성 자체보다는 독자 반응이나 판매 부수의 출판 현실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장르적 특징과 한계에 기인한다.

둘째, 독자 반응의 중요성은 결국 원본 헤게모니와 텍스트 위상의 문제로 이어진다. 세계문학의 정전화 관점에서 보면 범죄소설이나 스릴러 소설 장르는 『모르그가의 살인』의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나 『장미의 이름』의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같은 극소수의 몇몇 작가들을 제외하면 세계문학의 정전 대열 근처에 다가서기 어려운 편견과 싸워온 것이 사실이다.<sup>26)</sup> 전 세계 총 4억만부 가까운 판매 부수를 기록하고 있는 스릴러 소설의 전설적 대가 스티븐 킹이 노벨문학상 후보가 되기 어려운 현실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문학 시스템 내에서 스릴러 소설의 낮은 위상은 자연스럽게 스릴러 소설의 번역 방식과 번역 전략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위상이 낮은 원본에 대한 충실성보다는 번역본의 독자 수용성에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그렇다면 쿤츠의 소설은 상대적으로 원본중심적인 번역 충실성의 필요성이나 가치가 큰 정전 텍스트는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쿤츠 소설 번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원본중심주의와 원본 충실성의 근거는, 작품의 텍스트 외적인 요소들이 초래한 작품에 대한 관심과, 이로 인해 작품에 부여된 뜻밖의 대중적 헤

---

본(380쪽)에 비해 훨씬 축소 번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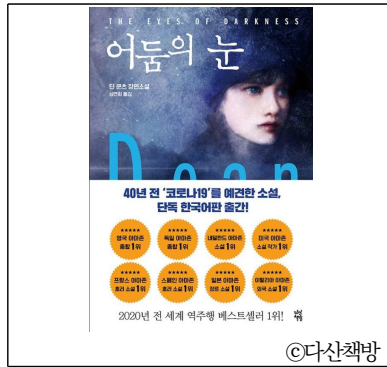
25) Carter, Ellen. "Why not translate metaphor in French crime fiction? The case of Caryl Férey's *Utu*",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22 (2014): 44.

26) Hedberg, Andreas. "The Knife in the Lemon: Nordic Noir and the Globalization of Crime Fiction." In *Crime Fiction as World Literature*, edited by David Damrosch, Louise Nilsson, and Theo D'haen. New York: Bloomsbury, 2017, p. 21.

게모니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견잡을 수 없는 확산과 사망자 폭증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해서, 미국 내 고조되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위기의 초점을 돌리는 전략으로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연구소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인위적인 진원지라는 음모론이 대두하고, 그 과정에서 쿤츠의 소설의 ‘중국 우한’이라는 배경 때문에 마치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발과 팬데믹 사태를 예측한 예언서급으로 폭발적인 관심과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었다. 더욱이, 소설에서 바이러스의 기원이 동물이 아니라 중국의 국립우한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생물무기라는 내용이 마치 실체가 있는 현실적 음모론의 맥락과 배경으로 왜곡, 중첩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는 쿤츠의 소설이 정치적인 반(反)중국 헤게모니 구축의 근거와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원본은 의도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영향력과 가시적 위상, 그리고 글로벌 독자들의 관심까지 확보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에서도 장르별 아마존 판매 1위를 차지하면서 ‘2020년 전 세계 역주행 베스트셀러 1위’로 등극한 쿤츠 소설에 대한 한국어 번역 역시, 작가성이나 작품성이 아닌, 텍스트 외적인 요인으로 극대화된 원본의 위상과 영향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미 또 다른 형태로 정전화된 소설의 번역 과정이 되어버린 측면이 크다. 문학의 장을 하나의 사회적, 문화적 제도 현상으로 정의한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관점에서 보면 “베스트셀러는 여러 가지 욕망과 이데올로기들의 상징적인 투쟁이 이루어지면서 헤게모니 쟁탈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sup>27)</sup>라는 점에서, 쿤츠 소설의 베스트셀러 위상은 이 소설의 국내 수용과 한국어 번역에 헤게모니적 영향력과 개입을 초래한 기제라고도 볼 수 있다.

27) 김현미, 190-191.



<그림 3> 딘 쿤츠 『어둠의 눈』, 2020, 한국어 번역본 표지

번역본 출판 후 30~40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번역본의 수명은 종료되고 새로운 번역이 필요한 시점이 되는데, 출판된 후 40년 만에 최초로 한국어 번역본이 역주행 출판될 만큼 화제를 끌어낸 쿤츠의 소설은, 번역 출판의 결정 역시 작품의 문학성보다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야기한 시대적 맥락과 수요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한 형태의 헤게모니가 더해지면서 출판까지 이루어진 쿤츠 소설의 한국어 번역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전 세계 사회적·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번역 작품이 선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중국 기원 관련성 때문에 처음부터 논란이 된 원본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이로 인한 작품의 베스트셀러 위상이, 결과적으로는 번역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원본중심적인 번역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본 소설에서 전염병을 무기로 삼으려는 중국과, 전염병의 공포를 중국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확장시키는 서사적 전개, 그리고 번역을 통해 이 같은 편견과 혐오의 대상이 중국인 전체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은 번역의 텍스트 외적인 환경적 요인과 사회정치적 헤게모니가 번역과정에 영향력을 끼친 문화번역의 결과물이자 흔적이라 할 수 있다.

## V. 나가는 말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전염병 팬데믹은 전염병 자체보다도 ‘부적절한 정보와 무지에 의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근거 없는 사회적 낙인과 배척을 야기시키고 ... 낙인과 차별이 유발하는 불안과 두려움은 질병 은폐의 악순환을 유발하며’<sup>28)</sup> 인류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흔들면서 인류 공존의 위기를 초래한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전대미문의 혼란과 공포는 악순환을 거치면서 자칫 편견과 혐오의 위험을 확대, 재생산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사회·문화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문화 이데올로기의 충돌 속에서 1차적으로 번역은 서로 다른 문화적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 문화 소통자의 역할을 부여받지만, 번역이 만들어내는 문화소통의 결과물은 결코 독립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고, 오히려 문화 이데올로기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헤게모니 충돌의 흔적과 결과로 남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화학작용을 문화번역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1981년 미국에서 출간된 딘 쿤츠의 스릴러 소설 *The Eyes of Darkness*가 40년이 지난 2020년 4월 한국에서 최초로 번역본이 출간된 배경과 과정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 같은 문제 제기의 근간에는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쿤츠의 소설이 갑자기 역주행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국어 번역본까지 출판된 계기가 작품의 문학성이나 작가의 위상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문화번역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대결 속에서, 쿤츠 소설에 등장하는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연구소의 생화학 무기로 제조된 치명적인 ‘우한-400’ 바이러스 출현은 코로나 팬데믹과의 평행이론의 차원에서 일종의 예언서급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실제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유사성이 거의 없다시피한 소설 속 바이러스 이야기가, 단순히 중국 우한에서 제조되었다는 소설적 배경 하나만으로 마치 중국 음모

28) 박한선, 「메르스와 전염병 인류학」, 『생명윤리포럼』 4.3 (2015): 11.

론을 위한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출간된 한국어 번역본의 번역 특징은 주목할 만하다.

문학성의 측면에서 원본의 낮은 위상이나 스릴러 소설 장르의 번역 관행까지도 뛰어넘으면서, 원본에 대한 절대적 충실성에 기반한 원본중심적인 직역과, 중국 정부에 대한 서구의 경계심과 불신, 편견, 혐오가 중국인 전체로 증폭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 번역을 통해 쿤츠 소설의 한국적 수용과 한국어 번역은 전염병 팬데믹이 초래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문화번역의 헤게모니를 통해 확대, 재생산하면서 사회적 낙인과 배척,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문학번역이 위치하고 있는 서로 다른 두 언어와 문화 사이의 교차 공간의 근간에 본질적으로 문화적 헤게모니의 충돌이 놓여있다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횡단하는 모든 문학번역은 근원적으로 문화번역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귀결된다. 그리고 문화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역은 번역가 개인의 주체적인 해석과 개인적인 선택이기보다는, 번역가에 대한 텍스트 외적인 요인들의 가시적, 비가시적 영향력의 결과물이자 흔적이라는 점에서, 문화번역에서 번역가의 미학적, 정치적 저항(resistance)<sup>29)</sup>의 가치와 의의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다.

---

29) “The aesthetic resistance to translation is [...] directed at a re-ordering of the senses to quicken and intensify the experience of the foreign reality. Political translation resistance is an unwillingness to translate or be translated as a means of protecting an identity that is perceived to be under threat from another language group.” Brisset, Annie. “Alterity in Translation: An Overview of Theories and Practices.” In *Translation Translation*, edited by Susan Petrilli, Amsterdam: Rodopi, 2003, p. 119.

◆ 참고 문헌

“Biosafety Level”, Wikipedia.com

<[https://en.wikipedia.org/wiki/Biosafety\\_level#Biosafety\\_level\\_4](https://en.wikipedia.org/wiki/Biosafety_level#Biosafety_level_4)>  
Accessed 22 May 2020.

Brisset, Annie. “Alterity in Translation: An Overview of Theories and Practices.” In *Translation Translation*, edited by Susan Petrilli, 102-132. Amsterdam: Rodopi, 2003.

Carter, Ellen. “Why Not Translate Metaphor in French Crime Fiction? The Case of Caryl Férey’s *Utu*”,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22 (2014): 44-56.

Even-Zohar, Itamar. “Polysystem”, *Poetics Today* 11.1 (1990a): 9-26.

\_\_\_\_\_. “The Position of Translated Literature Within the Literary Polysystem”, *Poetics Today* 11.1 (1990b): 45-51.

Hedberg, Andreas. “The Knife in the Lemon: Nordic Noir and the Globalization of Crime Fiction.” In *Crime Fiction as World Literature*, edited by David Damrosch, Louise Nilsson, and Theo D’haen, 13-22. New York: Bloomsbury, 2017.

Koontz, Dean. *The Eyes of Darkness*. London: Headline, 1996.

Munday, Jeremy.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Routledge, 2001.

“No, Dean Koontz Did Not Predict the Coronavirus in a 1981 Novel”, CNN, March 13, 2020.

<<https://edition.cnn.com/2020/03/13/us/dean-koontz-novel-coronavir-us-debunk-trnd/index.html>> Accessed 8 June 2020.

Pyrhönen, Heta. “Criticism and Theory.” In *A Companion to Crime Fiction*, edited by Charles J. Rzepka and Lee Horsley, 43-56. West Sussex, UK: Wiley-Blackwell, 2010.

“SCMP News.” *Twitter*, 13 Feb. 2020,

<[twitter.com/scmpnews/status/1227921354781077505](https://twitter.com/scmpnews/status/1227921354781077505)> Accessed 17 July 2020.

Su, Zhaohui, Dean McDonnell, Junaid Ahmad, *et al.* “Time to Stop the Use

of ‘Wuhan Virus’, ‘China Virus’ or ‘Chinese Virus’ Across the Scientific Community”, *BMJ Global Health* 5.9 (2020): 1-4.

김가희, 박윤희. 「르페브르의 문화번역 제약 고찰 및 적용: 문화번역 텍스트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7.2 (2016): 215-236.

김봉석. 「한국사회학에 대한 번역사회학적 연구 시론」, 『문화와사회』 25 (2017): 219-288.

김윤진. 「문화 충돌과 번역의 문제점」, 『불어불문학연구』 45 (2001): 25-51.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또 하나의 문화, 2005.

「동아·중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표기... 조선.매경.한경 ‘우한 폐렴’ 사용」, 『한국기자협회』 2020년 2월 5일자.

<[http://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7231](http://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7231)> (2020년 7월 26일 최종 방문)

마승혜. 「폴리시스템(Polysystem) 이론에 관한 고찰 및 이론 진화를 위한 새로운 논의」, 『번역학연구』 18.1 (2017): 41-64.

「美망명 홍콩박사, ‘코로나, 우한연구소서 발생」 『동아일보』 2020년 9월 14일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14/102914848/1>> (2020년 9월 25일 최종 방문)

박한선. 「메르스와 전염병 인류학」, 『생명윤리포럼』 4.3 (2015): 1-12.

박환영. 「인류학에서의 비교연구: 영미권 인류학의 관점과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53 (2014): 147-170.

「신종 코로나 ‘생화학무기설’에 美 상원-中 대사 충돌 ... 트럼프 ‘4월엔 사라질 것」, 『KBS 뉴스』 2020년 2월 11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9261&ref=D>> (2020년 6월 8일 최종 방문)

「우한 폐렴을 ‘신종 코로나’로 불러야 하는 이유는?」, 『한국일보』 2020년 1월 28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281652024995>> (2020년 8월 12일 최종 방문)

윤지관. 「번역의 정치학: 외국문학 번역과 근대성」, 『안과밖』 10 (2001): 26-47.

이명호. 「문화번역의 정치성: 이국성의 해방과 이웃되기」, 『비평과 이론』 15.1 (2010): 233-250.

정은귀. 「번역의 윤리와 정치성: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세계문학 번역

- 사], 『Trans-Humanities』 7.2 (2014): 39-67.
- 정태식. 「증오와 공포의 정치·종교 에토스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일고찰: 미국 복음주의와 폭스뉴스, 그리고 트럼프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4.2 (2020): 73-107.
- 최성민. 「질병의 낭만과 공포-은유로서의 질병」, 『문학치료연구』 54 (2020): 315-344.
- 「치명적 바이러스 보관한 러시아 연구소 폭발 ... 공포 확산」, 『국민일보』 2019년 9월 18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726394&code=61131111&cp=du>> (2020년 9월 26일 최종 방문)
- 쿤츠, 딘. 『어둠의 눈』, 심연희 옮김, 다산책방, 2020.

◆ ABSTRACT

Dean Koontz's *The Eyes of Darkness* and  
Cultural Transl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Fear

Lee, Hyung-jin\*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translation, reflected in the Korean translation of Dean Koontz's 1981 thriller novel *The Eyes of Darkness*, which has immediately become a significant bestseller worldwide in the context of COVID-19 Pandemic, regardless of the author's marginal status as a thriller writer or the crime novel's low literary status. Koontz's novel has been revived in 40 years mainly in the context of the particular reference to the 'Wuhan-400' virus with 100% fatality in the novel. Despite the lack of similarities between the virus in the novel and the COVID-19 reality, Koontz's novel has been recreated to be used as an effective political weapon in the U.S. to frame China as responsible for the COVID-19 Pandemic. The politically popular bestseller status of the novel with a recently generated cultural hegemony has resulted in the higher degree of faithfulness in the Korean translation despite the novel's low aesthetic value and crime fiction genre characteristics. While the COVID-19 pandemic has caused public fear and prejudice, the Korean translation of Koontz's novel has likely responded to the circumstances by recreating and amplifying prejudice and hatred against China as a result of faithful cultural translation.

☞ Key words: Dean Koontz, *The Eyes of Darkness*, cultural translation, COVID-19 Pandemic, fear, hatred

---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44 비교문학 제82집 (2020년 10월)

논문접수일 : 2020. 09. 24.

논문심사일 : 2020. 10. 12.

게재확정일 : 2020. 10. 12.

연구자: 이형진 / 숙명여자대학교 / 교수